

## 후두삼관육아종에 대한 임상 연구

### A Clinical Study on Intubation Graunloma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 
음성언어의학연구소

김광문 · 박국진 · 김영호 · 이준협

후두삼관육아종은 기도내삼관에 의해서 생기는 합병증의 하나로 삼관에 의한 후두손상으로 생긴다. 이 병은 여성에서 호발하며 특히 산부인과적인 수술과 관련이 많으며 이중 제왕절개술이 제일 많은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. 그동안 산발적인 증례보고가 있어왔으나, 근번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임상 양상을 고찰하고자, 그 동안 국내에 보고되었던 모든 문헌과 본 저자가 경험했던 22례를 포함한 총 167례를 후향적으로 조사,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- 1) 남녀 성비는 1 : 6.6으로 여성에서 호발했다(145례).
- 2) 발생 연령은 주로 20대와 40대 사이에 분포하였다(86.8%).
- 3) 주로 일측 성대에 발생한다(65.9%).
- 4) 발생 부위는 피열연골의 성대돌기 내측부(73.8%), 성대의 후 1/3부위(14.3%) 성문하부(2.9%) 순으로 호발하였다.
- 5) 환자의 주증상은 애성(50.7%)이 제일 많고, 다음으로 경부불편감이었다.
- 6) 발생원인이 된 수술은 산부인과 수술이 60례이고, 그중 제왕절개 수술이 45례로 가장 많았다.